

가정의 경제적 수준과 중학생의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정서행동문제의 매개효과: 부모구성 및 부모의 삶의 만족도에 따른 다집단분석

하 규 영

이 민 영[†]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본 연구는 중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가정의 경제적 수준과 정서행동문제(공격성, 사회적 위축, 우울), 부모구성 및 부모의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부모구성(부모, 한 부모)과 부모의 삶의 만족도에 따른 네 집단을 구성하였으며 가정의 경제적 수준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정서행동문제를 매개요인으로 설정하여 다집단분석(multi-group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분석에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초4 패널 데이터 중 5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중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은 부모 모두와 같이 거주하며 부모의 삶의 만족도가 높은 집단에서만 유의하였다. 둘째,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중학생의 정서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부모구성과는 상관없이 부모의 삶의 만족도가 낮은 집단에서만 유의하였다. 셋째, 가정의 경제적 수준과 중학생의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정서행동문제(공격성)의 매개효과는 부모 모두와 같이 거주하며 부모의 삶의 만족도가 낮은 집단에서만 유의하였다. 넷째, 우울은 모든 집단에서 중학생의 삶의 만족도와 가장 높은 상관 및 경로계수를 지니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중학생의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개입방법과 연구의 제한점 및 함의를 제시하였다.

주요어 : 삶의 만족도, 부모구성, 한부모 가정, 부모 삶의 만족도, 가정의 경제적 수준, 정서행동문제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이민영,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본관 312B호 / E-mail: 10291220@hanmail.net

청소년기 삶의 만족은 향후 성인기의 행복한 삶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다(Yang, 2008). 그러나 우리나라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OECD국가들 중 최하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에서도 특히 중학생의 삶의 만족은 이전보다 급격히 하락하는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 다수의 연구들 간에 공통된 내용이다(김용희, 한창근, 2017; OECD, 2017). 즉 청소년기 삶의 만족이 인간의 건강한 적응 및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Suldo & Huebner, 2006)는 점을 고려해볼 때, 우리나라 중학생의 삶의 만족도는 사회적으로도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삶의 만족’이란 개인이 스스로의 삶에 대한 긍정 또는 부정정서를 현재 얼마나 경험하는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자기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인지적 평가이다(Diener, 1984, 2000). 이는 스스로의 삶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일 때 수반되며(Diener, Oishi, & Lucas, 2003), 다양한 삶의 여건들이 자신의 주관적 기준과 일치할 경우에 느끼는 행복감의 정도(Pavot & Diener, 1993)나 개인이 직접 경험하는 심리적 행복감(김신영 등, 2006), 정서적 만족(이명숙, 2013) 등의 용어로도 표현된다. 이러한 삶의 만족도는 인간의 심리 및 신체적 건강과 대인관계, 직업상의 문제 등에 영향을 미치는데(Huebner, Suldo, Smith, & McKnight, 2004), 특히 청소년기 삶의 만족은 일생에 걸쳐 유지된다는 점에서(전혜진, 유미숙, 2015; Yang, 2008) 이 시기의 삶의 만족감을 향상시키는 요인들을 밝혀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Huebner(1991)에 의하면 청소년기 삶의 만족은 성인기의 삶의 만족과는 다른 시각으로 평가되어야 하는데, 이는 청소년기에 속한 개인

은 급격한 신체적 성장과 정서적, 심리사회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청소년은 정신적 스트레스에 특히 취약하고, 학업부담이나 경쟁 등의 상황 속에서 자기 삶에 대해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갖기 시작(신미, 전성희, 유미숙, 2010)한다. 이러한 청소년기 삶의 만족과 관련된 심리 및 정서적 변인에는 자아존중감과 심리적 안녕감(소선숙, 김청송, 2016), 자아정체감, 진로정체감, 우울, 스트레스(김남정, 임영식, 2012; Pavot & Diener, 1993) 등이 있으며, 사회 및 관계적 변인으로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회적 지지(남미애, 2011; 송현심, 성승연, 2015), 부모 및 또래, 교사관계(구현영, 박현숙, 장은희, 2006; 성은모, 김근희, 2013) 등이 있다. 학업 활동 및 성취, 성적만족 등의 학교관련 요인(전영상, 최영신, 2017; 최희철, 황매향, 2010)과의 상관성도 다수의 연구를 통해 보고된 바 있다.

높은 수준의 삶의 만족도를 보고하는 청소년은 학교 적응 수준이 높고(전현정, 정혜원, 2016)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과 높은 문제 해결력을 보이는 반면(Jiang, Lyons & Heubner, 2016), 낮은 수준의 삶의 만족도를 보고하는 청소년은 우울 등의 심리적 문제(Hawkins, Hawkins, & Seeley, 1992)나 비행, 공격성, 자살과 관련한 문제 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ammerman, Phipps, & Ben-Arieh, 2010; Park, Koo, & Schepp, 2005). 한편 미국 청소년에 비해 한국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더 낮았다는 연구나(Park & Huebner, 2005) OECD국가들 중 한국 청소년의 성취동기 및 학업성취도는 상위권인 반면 삶의 만족도는 하위권(OECD, 2017)이었다는 결과 등은,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

대한 진지한 고찰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매개모형: 가정의 경제적 수준, 정서행동문제, 중학생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

청소년의 주관적 삶의 만족도 수준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이란 가정이 사회경제적으로 그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일컫는 것으로, 생필품이나 교육기회 등 자녀가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원을 결정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부모의 양육행동과 자녀의 발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Leyendecker, Harwood, Comparini, & Yalcinkaya, 2005). 일반적으로 부모의 교육수준과 수입은 사회경제적 수준을 나타내는 좋은 지표로 간주되는데(Bornstein, Hahn, Suwalsky, & Haynes, 2003), 이 두 지표의 수준이 모두 높은 가정의 어머니는 심리적 안녕감이 높고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이기영, 1987). 반면 이 둘의 수준이 모두 낮은 어머니는 심리적 안녕감이 낮고, 이는 다시 통제적이고 적대적인 양육행동으로까지 영향이 전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송신영, 박성연, 2008).

이로 인해 가정의 낮은 사회경제적 수준은 자녀가 겪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일차적 위험요인으로 자주 언급된다(Mueller & Parcel, 1981). 예를 들어 Conger와 동료들(Conger, Conger, & Martin, 2010)의 가족스트레스이론에 의하면 낮은 사회경제적 수준의 부모는 정서 및 행동상의 어려움을 경험할 확률이 높는데, 이는 곧 부부간 갈등과 양육방식에도 영향을 미쳐 우울, 불안, 공격성, 위축감 등 청소년기 자녀의 여러 가지 부적응 문제를 야기한다(Tiet et al., 2001). 실제로 가정의 낮은 사회경

제적 수준은 청소년기 자녀의 삶의 만족도를 직접적으로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유정원, 김형모, 2012), 부모의 삶의 만족도나 심리적 요인(우울), 양육행동 등을 통해 자녀의 적응에도 기여한다(Belsky, 1984).

한편 청소년기 삶의 만족감은 환경적 요인 뿐만 아니라 개인의 정서행동적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대표적으로 공격성은 청소년기의 아주 흔한 행동문제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동은 물론 자기방어를 위한 위협적 사고 및 태도를 의미한다(곽금주, 1992). 때문에 공격성은 청소년의 일상생활 적응을 저해하며(김금순, 김은미, 2015), 적절히 해소하지 못할 경우 음주, 흡연, 약물, 가출, 폭행, 강도 및 폭력비행 등의 비행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진혜민, 박병선, 배병우, 2011).

사회적 위축과 우울 또한 청소년기의 대표적인 정신건강 문제라 할 수 있는데, 먼저 사회적 위축은 혼자 있는 상태(solitude), 즉 사회적 상호작용을 회피하고 이러한 상황에 적절히 참여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것을 의미한다(조주영, 오인수, 2014). 이는 결핍된 사회성이나 소외, 고립, 수줍음, 행동억제 등을 포괄하는 용어로(Rubin & Coplan, 2004), 다수의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부적응 행동 중 내면화 행동문제의 하나이다(Younger & Daniels, 1992). 특히 청소년기 사회적 위축은 낮설거나 사회적으로 평가받는 상황에서 경험하게 되는 경계심이나 자기인식(이봉주, 민원홍, 김정은, 2014),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특정 상황에서 혼자 있고자 하는 모든 형태의 행동문제를 의미한다(정경미, 신민정, 강지현, 김은성, 2013).

우울은 많은 청소년들이 종종 경험하는 심리적 증상으로, 제14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

조사(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8)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약 25%가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우울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심한 정도의 우울은 자살사고 및 시도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특별한 사회적 관심이 요구된다(장영애, 이영자, 2014). 우울한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타인에 대한 친밀감 수준이 낮고, 혼자 개인적 장소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기는 등 사회적으로 고립된 경향을 보인다(Kandel, Ravies, & Davies, 1991). 또한 청소년기의 우울은 사회적 위축을 예측하는 주요 기제로, 우울한 청소년일수록 사회적 위축 수준이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었다(이봉주, 민원홍, 김정은, 2014).

이처럼 공격성, 사회적 위축, 우울을 중심으로 하는 청소년기의 다양한 정서행동문제들은 개인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침으로써 자연스레 주관적 안녕감과 삶의 만족을 저하시킨다. 공격적으로 타인을 비난하는 일에 몰두하는 경향이 삶의 만족감 수준을 떨어뜨린다는 연구결과(Karremans, Van Lange, Ouwerkerk, & Kluwer, 2003)나 사회적 위축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낮추는 유의미한 경로를 밝힌 연구(김은아, 배민영, 2016),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삶의 질과 우울의 부적 상관관계를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는 선행연구들(조명한, 김정오, 권석만, 1994; 안지혜, 2016)이 모두 그 근거가 된다.

종합해볼 때, 가정의 낮은 사회경제적 수준은 부모의 정서 및 행동상의 문제와 양육방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청소년기 자녀의 여러 가지 정서행동문제(공격성, 사회적 위축, 우울)를 야기함으로써 건강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하여 주관적인 삶

의 만족 수준을 낮추는 것으로 가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연구에서는 청소년 자녀의 정서행동문제(공격성, 사회적 위축, 우울)가 가정의 경제적 수준과 자녀의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중재모형: 부모구성 및 부모의 삶의 만족도의 중재효과

중재모형이란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 효과의 방향 또는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재변인을 포함하는 모형을 의미한다(Baron & Kenny, 1986).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청소년의 성장 및 복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모와 가정환경임을 고려해볼 때, 상담 현장에서의 보다 나은 함의점을 찾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상술한 매개모형과 더불어 부모구성 및 부모의 삶의 만족도의 중재효과까지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청소년기는 사회적 관계 확장을 통해 심리적으로 독립을 추구해가는 시기이지만(Huebner, 1991), 부모와의 관계는 여전히 청소년기 삶의 만족감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Bynum & Kotchick, 2006).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인간이 태어나서 최초로 맺게 되는 사회적 관계로(최선남, 최외선, 1995), 그 영향력은 다른 어떠한 지지관계보다도 더 강하다. 그만큼 부모는 자녀에게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중심인물이며(정혜숙, 김영희, 2014), 부모-자녀 관계는 자녀의 삶의 만족 수준을 예측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된다(Dew & Huebner, 1994).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부모-자녀 간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가 자녀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변인임을 보고한 바 있는데,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의 심리적 변인이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다시 자녀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 자녀는 부모와의 관계가 긍정적일 때, 스스로의 삶 역시 긍정적으로 지각하기 때문이다(김정연, 정현주, 2008; Clair, 2012). 즉, 높은 수준의 삶의 만족도를 보고한 부모는 심리적 안녕감과 긍정정서를 근거로 자녀를 양육하기 때문에 자녀와 긍정적인 방향으로 상호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부모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의 건강한 발달과 삶의 만족감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김지현, 이지민, 2011). 실제로 삶의 만족도가 높은 어머니는 전반적으로 자녀의 일상생활에 대해 잘 알고, 온정이나 수용 등 자녀에게 바람직한 양육행동을 많이 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김주리, 김남희, 2014; 박서영, 박성연, Cheah, 2007), 이와 같은 부모와의 친밀한 경험은 자녀의 다음날 행복감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매우 강력한 정서적 자원으로 입증된 바 있다(Chung, Grace, 이상균, 유조안, 2015). 반대로 부모의 삶의 만족도가 감소할수록 자녀의 삶의 만족도 역시 감소할 확률은 그렇지 않을 확률에 비해 2.4 배 더 높았으며, 이는 자녀의 부적응적 학교생활을 5배나 더 높게 예측했다는 연구결과(강윤아, 2018)도 있다.

요약해보면 부모는 자녀의 전반적인 삶에 영향을 미치고(Bigner, 2010), 부모의 삶의 만족도는 자녀의 긍정적인 발달(Berger & Spiess, 2011)과 자녀의 삶의 만족감에도 자연스레 영향을 미친다(김주리, 김남희, 2014). 따라서 부모의 삶의 만족도가 감소한다는 것은 단순히 부모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된다(강윤아, 2018). 즉, 부모와 자녀 각각의 삶의 만족은 양방향의 관

계로, 서로가 서로를 예측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변인인 것이다.

한편 가족의 구조 역시 자녀의 발달 및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먼저 비양부모 가족에 비해 양부모 가족이 부모와 자녀 모두 더 높은 수준의 삶의 만족감을 나타냈으며(김용희, 한창근, 2017; 백혜영, 강현아, 2016), 한부모가족 자녀는 낮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석소현, 신성희, 2010; Garg, Melanson, & Levin, 2007)이나 주관적 웰빙(Klock, Clair, & Bradshaw, 2014), 정서행동문제(공격성, 사회적 위축, 우울), 학업성취 및 학교적응문제 등을 겪는다는 것이 다수의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이은경, 박성연, 2004; 홍순혜, 2004).

그 밖의 여러 최근 연구에서도 청소년기 삶의 만족에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과 부모요인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소영, 윤기봉, 2016; 석말숙, 구용근, 2015). 그러나 한부모 또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모든 청소년이 반드시 낮은 삶의 만족도를 보고하는 것은 아니다. 많은 선행연구들은 가정환경의 부정적 영향을 완충하는 보호요인으로서의 부모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한아름, 2018), 이는 결론적으로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보다는 부모와의 관계가 자녀의 삶의 만족에 더 중요한 요인임을 의미한다(염유식, 김경미, 이승원, 김수미, 2016).

이상의 이론적 고찰을 종합해보면 부모와 가정환경은 청소년의 적응 발달 및 심리적 안녕감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요인으로 사료되나, 최근 몇몇 연구들에서는 다소 예외적인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다. 이를테면 최아론과 이영순(2015)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행복감이

자녀의 행복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며, 자녀의 삶의 만족도 수준에 따라 어머니의 삶의 만족도가 자녀의 삶의 만족도를 예측 또는 예측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도 있었다(Clair, 2012). 한아름(2018)의 연구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었으나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 모두에서 부모의 삶의 만족도가 긍정적 양육행동과 자아존중감을 통해 청소년기 자녀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했다. 이처럼 가정요인 및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에서 관찰되는 비일관된 결과는, 두 변인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적 요인들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중학교 2학년은 청소년 전환기에 속하는 대표적인 집단으로, 이 시기 청소년은 부모와의 관계에서는 보호 및 의존을 원하는 동시에 정서적으로는 독립하고 싶은 욕구로 인해 내적 갈등이나 정서행동상의 문제 등을 빈

번하게 경험한다(유순화, 2007). 이와 같은 중학교 2학년 언저리의 청소년들이 자아형성 과정에서 겪는 혼란과 불만, 반항적인 심리상태를 일컬어 ‘중2병’이라는 신조어마저 생겨났을 지경이다(중앙일보, 2013.8.30.). 따라서 청소년 전환기의 중심에 있는 중2의 정신건강 및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으로 개인적 측면뿐 아니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부모 및 가정환경 또한 중요한 요인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김연주, 이지민, 2015). 그러나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관련된 기존연구들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국한하여(김용희, 한창근, 2017) 이를 예측하는 요인으로서 부모 또는 개별 요인들과의 관계를 단편적으로 살펴본 경우가 대부분이다(한아름, 2018). 즉, 중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가정의 경제적 수준과 정서행동문제(공격성, 사회적 위축, 우울), 부모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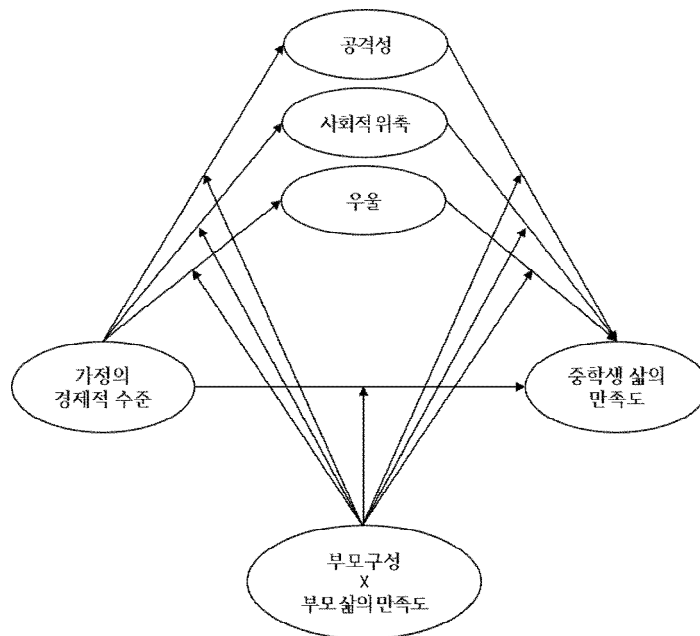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성 및 부모의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연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구성(부모, 한부모)과 부모의 삶의 만족도에 따른 네 집단을 구성하여, 경제적 수준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정서행동문제를 매개요인으로 설정하여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한 다집단분석(multi group analysis)을 실시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중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부모구성과 부모의 삶의 만족도 차이로 인한 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둘째,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중학생의 정서행동문제(공격성, 사회적 위축,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부모구성과 부모의 삶의 만족도 차이로 인한 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셋째,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중학생의 정서행동문제를 매개로 중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부모구성과 부모의 삶의 만족도 차이로 인한 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방 법

연구 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초4패널 데이터 중 5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KCYPS는 2009년 교육부 학교통계를 표집틀로 하여 층화다단계집락표집을 사용한 종단조사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초4패널 데이터는 2010년(1차년, 초4) 2,378명을 시작으로 2014년(5차년, 중2) 2,378명까지 아동·청소년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추적 조사된 매칭 데이터이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 이 중 5차년도 자료만을 분석에 활용하게 된 이유는 두 가지로, 먼저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한 모든 변인이 패널데이터에 포함되기 시작한 시점이 2014년이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이후 2016년(7차년)까지 해당 패널조사가 지속되기는 했으나 원표본 유지율 역시 5차년도에 가장 높아(87.1%, 2010년 대비), 표본의 대표성을 고려할 때 5차년도 자료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뿐만 아니라 5차년도 패널에 해당되는 중학교 2학년은 상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설정한 문제를 살펴보기에 가장 적합한 청소년 전환기의 대표적인 집단이므로, 발달적 관점에서도 연구대상으로 타당한 집단이라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의 대상은 설문에 응답한 총 2,378명 중 340명이 포함되었으며, 여기에는 한부모(친아버지 또는 친어머니)와 거주중이라고 응답한 133명, (한)조부모 및 한부모와 거주중이라고 응답한 37명, 그리고 부모(친아버지와 친어머니)와 거주한다고 응답한 170명이 포함된다. 원데이터에서 부모와 거주중이라 응답한 학생은 총 1,777명이었으나 한부모 또는 조부모 및 한부모와 거주중이라고 응답한 학생 170명과의 비율을 고려하여 spss상에서 무작위로 선택되었다. 표 1에 제시된 결과에 따르면 부모와 거주중인 집단(이하, 부모가정집단)의 응답자는 남학생 80명(47.1%), 여학생 64명(37.6%), 무응답 26명(15.3%)이었으며, 한부모 또는 조부모 및 한부모와 거주중인 집단(이하, 한부모가정집단)의 응답자는 남학생 71명(41.8%), 여학생 74명(43.5%), 무응답 25명(14.7%)으로 구성되었다. 한편, 이들은 부모의 삶의 만족도 점수를 기준으로 재분류되었다.

표 1.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특성 및 집단분류 (N=340)

	N	남	여	무응답
1. 한부모(친아버지 또는 친어머니)와 거주 중	133	71명(41.8%)	74명(43.5%)	25명(14.7%)
2. (한)조부모 및 한부모와 거주 중	37			
3. 부모(친아버지와 친어머니)와 거주 중	170	80명(47.1%)	64명(37.6%)	26명(15.3%)
집단 1 (부모가정-부모의 높은 삶의 만족도)	85	40명(47.1%)	29명(34.1%)	16명(18.8%)
집단 2 (부모가정-부모의 낮은 삶의 만족도)	85	40명(47.1%)	35(41.2%)	10(11.8%)
집단 3 (한부모가정-부모의 높은 삶의 만족도)	88	38명(43.2%)	37(42.0%)	13(14.8%)
집단 4 (한부모가정-부모의 낮은 삶의 만족도)	82	33명(40.2%)	37(45.1%)	12(14.6%)

먼저 부모의 삶의 만족도는 Z점수로 표준화되어 0점 미만의 집단은 낮은 삶의 만족도, 0점 초과 집단은 높은 삶의 만족도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즉, 모든 응답자는 부모구성형태 및 부모의 삶의 만족도 두 개의 축을 기준으로 총 4개 집단(부모가정-부모의 높은 삶의 만족도, 부모가정-부모의 낮은 삶의 만족도, 한부모가정-부모의 높은 삶의 만족도, 한부모가정-부모의 낮은 삶의 만족도)으로 분류되었다.

측정 도구

삶의 만족도(부모/자녀)

부모의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연구진이 작성 및 개발한 단일문항이 사용되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 응답자는 ‘귀하는 현재 자신의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라는 문항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1점)’에서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4점)’까지 4점 Likert식 평정 척도로 응답했으며, 역채점한 점수가 높을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도 결과값을 역채점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중학생 자녀의 삶의 만족도를 측

정하기 위해서는 김신영 등(2006)이 개발한 삶의 만족도 3문항이 사용되었다. 각 문항은 ‘나는 사는 게 즐겁다.’, ‘나는 걱정거리가 별로 없다.’, ‘나는 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자는 ‘매우 그렇다(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4점)’까지 4점 Likert식 평정 척도로 응답하였다. 역채점한 점수가 높을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하므로, 본 연구에서도 결과값을 역채점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원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 계수 역시 .83이었다.

공격성

중학생의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조봉환, 임경희(2003)가 개발한 척도에서 중복문항을 제외하고 수정된 6개 문항이 사용되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 구체적인 예시 문항은 ‘하루 종일 화가 날 때가 있다.’ ‘남이 하는 일을 방해할 때가 있다.’ ‘별 것 아닌 일로 싸우곤 한다.’ 등이며, 응답자는 ‘매우 그렇다(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4점)’까지 4점 Likert식 평정 척도로 응답하였다. 역채점한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

므로, 본 연구에서도 결과값을 역채점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김진아와 한귀례(2014)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 계수는 .84로 나타났다.

사회적 위축

중학생의 사회적 위축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김선희, 김경연(1998)이 개발한 척도에서 중복 문항을 제외하고 수정된 5개 문항이 사용되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 구체적인 예시 문항은 ‘주위에 사람들이 많으면 어색하다.’ ‘부끄러움을 많이 탄다.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싫어한다.’ 등이며, 응답자는 ‘매우 그렇다(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4점)’까지 4점 Likert식 평정 척도로 응답하였다. 역채점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위축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므로, 본 연구에서도 결과값을 역채점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김진아와 한귀례(2014)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5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 계수는 .89로 나타났다.

우울

중학생의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간이정신진단검사(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1984) 중 수정된 10개 문항이 사용되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 구체적인 예시 문항은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한다.’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모든 일에 관심과 흥미가 없다.’ 등이며, 응답자는 ‘매우 그렇다(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4점)’까지 4점 Likert식 평정 척도로 응답하였다. 역채점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므로, 본 연구에서도 결과값을 역채점하여 분석에 사용

하였다. 김진아와 한귀례(2014)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 계수는 .91로 나타났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

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연구진들이 작성 및 개발한 단일문항이 사용되었다. 이는 부모가 직접 해당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대해 평가한 것으로, 응답자는 ‘매우 잘 사는 편(1점)’에서 ‘매우 못 사는 편(7점)’까지 7점 Likert식 평정 척도로 응답하였다. 역채점한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므로, 본 연구에서도 결과값을 역채점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

본 연구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분석을 진행하였다. 가장 먼저, 상술했듯 전체 응답자는 부모구성 및 부모의 삶의 만족도를 기준으로 총 4개 집단(부모가정-부모의 높은 삶의 만족도, 부모가정-부모의 낮은 삶의 만족도, 한부모가정-부모의 높은 삶의 만족도, 한부모가정-부모의 낮은 삶의 만족도)으로 분류되었다. 이어서 연구모형에 포함된 각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SPS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및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자료의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된 변인들의 왜도 및 첨도도 함께 확인하였다. 또한, 각 집단간 변인들의 평균차이와 분산의 동질성을 검증하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집단간 평균 및 분산 값에 유의한 차

이가 발견된 경우, Dunnett T3 검정을 추가적으로 진행하였다. 나아가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청소년 자녀의 정서행동문제를 매개하여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부모구성 및 부모의 삶의 만족도에 따라 다를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AMO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집단별 요인 적재치에 동일성을 부여하는 측정동일성을 확인하였으며, 이어서 연구모형의 경로계수를 제약한 구조동일성을 검증하여 집단간 경로계수의 유의한 차이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각 집단의 경로계수의 간접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모든 결측치는 AMOS 프로그램 상에서 FIML(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처리되었다.

결 과

기초 분석

본 연구의 연구모형에 포함된 각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상관은 표 2와 같다. 전체 응답자의 삶의 만족도 평균은 2.97, 공격성의 평균은 2.00, 사회적 위축의 평균은 2.26, 우울의 평균은 1.82로 나타났고, 이들이 속한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매우 못 사는 편 0.3%, 못사는 편 4.4%, 약간 못사는 편 10.9%, 보통수준 59.1%, 약간 잘 사는 편 9.7%, 잘 사는

표 2. 주요 변인간 상관관계 (N=340)

	1	2	3	4	5							
1. 삶의 만족도	1											
2. 공격성	-.33**	1										
3. 사회적 위축	-.41**	.30**	1									
4. 우울	-.63**	.47**	.61**	1								
5. 가정의 경제적 수준	.27**	-.12*	-.14**	-.19**								
					5	5	5	5	5	5	5	5
					(1)	(2)	(3)	(4)	(5)	(6)	(7)	(7)
					비율(%)							
평균					0.3	4.4	10.9	59.1	9.7	11.2	2.1	
(표준 편차)												
집단1	2.99(.60)	1.94(.58)	2.21(.75)	1.82(.62)	1.2	3.5	11.8	60.0	11.8	10.6	1.2	
집단2	3.10(.65)	1.92(.62)	2.12(.78)	1.68(.62)	3.5	1.2	3.5	49.4	11.8	25.9	4.7	
집단3	2.89(.61)	2.14(.59)	2.34(.77)	1.91(.62)	1.1	6.8	14.8	62.5	5.7	4.5	1.1	
집단4	2.92(.60)	1.98(.64)	2.38(.72)	1.86(.60)	1.2	6.1	13.4	64.6	9.8	3.7	1.2	

주. 집단1(N=85)= 부모가정-부모의 높은 삶의 만족도, 집단2(N=85)= 부모가정-부모의 낮은 삶의 만족도, 집단3(N=88)= 한부모가정-부모의 높은 삶의 만족도, 집단4(N=82)= 한부모가정-부모의 낮은 삶의 만족도.
가정의 경제적 수준- 1)= 매우 못 사는 편, 2)= 못 사는 편, (3)= 약간 못 사는 편, (4)= 보통수준, (5)= 약간 잘 사는 편, (6)= 잘 사는 편, (7)= 매우 잘 사는 편

편 11.2%, 매우 잘 사는 편 2.1%의 분포를 보였다.

표 2에 나타난 각 변인간의 상관을 살펴보면, 삶의 만족도는 공격성, 사회적 위축, 우울 등의 정서행동문제와는 부적의 관계를 갖는 반면 가정의 경제적 수준과는 정적인 관계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모든 정서행동문제와 부적관계를 보였다. 가장 높은 상관을 지니는 변인은 삶의 만족도와 우울이었고, 가장 낮은 상관을 지니는 변인은 가정의 경제적 수준과 공격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구 자료의 왜도와 첨도는 각각 절대값 2 미만, 절대값 7 미만의 값을 보여 자료의 정규성이 확인되었다(Curran West, & Finch, 1996). 이어서 각 집단간 변인들의 평균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이 실시되었다. 그 결과 중학생 자녀의 삶의 만족도와 정서문제에 대한 네 집단의 분산의 동질성은 확인되었으나 집단간 평균값의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반면,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대한 분산 및 평균값에는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어 Dunnett T3 검정을 실시한 결과, $F(3,340)=14.062, p<.001$ 에서 부모가정- 부모의 낮은 삶의 만족도 집단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으며 나머지 세 집단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조모형 분석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청소년 자녀의 정서 행동문제를 매개하여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부모구성 및 부모의 삶의 만족도에 따라 다를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집단별 요인 적재치에 동일성을 부여하는 측정동일성을 확인하였다. 표 3에 제시된 결과에 따르면 본 연구의 측정동일성은 기저모형과 동일모형으로 고려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적합도 수치가 오히려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델 비교시 각 집단 간 요인 적재치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chi^2=47.688, df=50, p=.875$) 네 개 집단에 속한 모든 응답자들은 주어진 문항에 대해 동일한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어서 연구모형의 경로계수를 제약한 구조동일성을 검증하여 집단간 경로계수의 유의한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구조동일성 모형의 적합도는 측정동일성 모형에 비해 .01보다 작은 CFI 변화량을 보여 두 모형은 대등한 것으로 고려되었다(Cheung & Rensvold, 2002). 그러나 각 집단은 모든 경로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최종모형은 RMSEA .05이하의 좋은 절대적 적합도와 CFI .80 이상의 괜찮은

표 3. 집단간 동일성 검증

	χ^2	df	TLI	CFI	RMSEA
기저모형	1956.342***	1,064	.776	.817	.050
측정동일성모형	2004.030***	1,124	.791	.819	.048
구조동일성모형	2051.678***	1,145	.788	.814	.049

주. *** $p < .001$

상대적 적합도 지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홍세희, 2000; Browne & Cudeck, 1993). 다변량 분석에 관한 기존 문헌(Hair, Tatham, Anderson, & Black, 1998)에 따르면 TLI와 CFI는 최소 .70 이상의 값을 지녀야 하며, 그 값이 .90 이상일 경우 모형의 적합도가 최적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모형 적합도는 최적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나 모두 기준에는 적합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에 비교적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장문정 & 이은남, 2015). 또한, 홍세희(2000)에 따르면 TLI는 “이론모형은 완벽하게 맞다”는 가정하에 중심적 χ^2 분포를 바탕으로 개발됨에 따라 “비현실적인” 가정을 기초로 하는 반면 CFI는 “이론모형은 어느 정도 틀리다”라는 가정하에 비중심적 χ^2 분포를 바탕으로 한다. RMSEA 역시 CFI와 마찬가지로 비중심적 χ^2 분포를 바탕으로 개발되었음을 고려할 때, 본 연구모형이 보여준 적합도는 현실적인 가정하에서 충분히 수용가능함을 알 수 있다.

각 집단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수준, 정서

행동문제, 삶의 만족도의 관계모형 경로계수는 표 4와 같다. 구체적으로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집단은 부모가정- 부모의 높은 삶의 만족도 집단이 유일하였다($B=.17, P<.001$). 부모가정- 부모의 낮은 삶의 만족도 집단은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고 ($B=-.20, P<.01$), 공격성은 다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30, P<.001$). 한편, 한부모가정- 부모의 낮은 삶의 만족도 집단은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우울과 ($B=-.15, P<.05$) 사회적 위축($B=-.21, P<.05$)에 영향을 미치며, 우울은 다시 삶의 만족도 ($B=-.81, P<.001$)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였다. 모든 집단의 청소년 자녀들은 우울로 인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 결과는 한부모- 부모의 높은 삶의 만족도 집단에서 가장 높고($B=-.97 P<.001$), 부모가정- 부모의 낮은 삶의 만족도 집단에서 가장 낮았다 ($B=-.50, P<.01$).

각 집단의 경로계수의 간접효과를 검증하기

표 4. 집단별 연구모형의 경로의 표준화계수(β)

	집단1	집단2	집단3	집단4
가정의 경제적 수준 → 우울	-.15	-.18	-.05	-.25*
가정의 경제적 수준 → 사회적위축	-.13	-.20	.12	-.28*
가정의 경제적 수준 → 공격성	-.15	-.33**	.14	-.02
가정의 경제적 수준 → 삶의만족도	.29***	.15	-.05	.17
공격성 → 삶의만족도	.17	-.32**	-.06	.28
사회적위축 → 삶의만족도	-.06	-.10	.19	.14
우울 → 삶의만족도	-.70***	-.44**	-.89***	-.74***

주. 집단1= 부모가정-부모의 높은 삶의 만족도, 집단2= 부모가정-부모의 낮은 삶의 만족도, 집단3= 한부모가정-부모의 높은 삶의 만족도, 집단4= 한부모가정-부모의 낮은 삶의 만족도/

* $p < .05$, ** $p < .01$, *** $p < .001$

표 5. 매개효과 검증

	경로	간접효과(β)	Z
집단2	경제적 수준-공격성-삶의만족도	.11	2.09*
집단4	경제적 수준-우울-삶의만족도	.19	1.84

주. 집단2= 부모가정-부모의 낮은 삶의 만족도, 집단4= 한부모가정-부모의 낮은 삶의 만족도

* $p < .05$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한 매개 효과의 유의도 검증결과는 표 5에 제시되었다. 분석결과, 부모가정- 부모의 낮은 삶의 만족도 집단에서만 정서행동문제로서의 공격성이 가정의 경제적 수준과 청소년 자녀의 삶의 만족도를 유의하게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논 의

본 연구의 주요 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중학생 자녀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은 삶의 만족도가 높은 부모(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와 함께 거주하는 집단에서만 유의하였다. 즉, 삶의 만족도가 높은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중학생의 경우,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이들의 삶의 만족도 역시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가정에서의 정서적 환경이 안정되어 있다면 물리적 환경인 경제적 요소 역시 중학생들의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아동(만 18세 미만)의 삶의 질 차이는 주로 빈곤이나 건강, 교육, 비행 및 주거 등의 영역에서의 박탈로 인해 야기될 수 있다(Bradshaw, Martorano, Natali, & Nueboug, 2013)는 기존 연구를 뒷받침한다. 인간은 환경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하는 존재이기에(Bronfenbrenner,

1989) 다양한 사회문화적 자원은 아동·청소년들이 적응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경식, 최성보, 이현철, 2009). 특히,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은 자녀의 신체적·정서적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Frank et al., 2010), 아버지의 높은 소득수준은 아동의 높은 행복감과 관련이 있고 알려져 있다(김경훈, 김형재, 이은림, 2013).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부모를 둔 청소년들은 교육, 여가, 취미 등에 있어 그렇지 못한 청소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양하고 만족스러운 경험을 할 수 있고, 이러한 경험은 이들의 발달을 촉진시키는 자원으로서 기능할 수 있으며 자신의 삶에 더욱 만족할 수 있도록 한다(강덕제, 이강현, 2017). 그러나 가정의 사회경제적 자원이 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러한 결과는 가정에서의 정서적 환경이 불안정한 경우 물리적 환경이 자녀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충분조건으로 기능할 수 없다는 점 또한 시사한다. 이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자녀의 신체적·인지적·정서적 건강의 초기치에는 영향을 주지만 변화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김경식과 동료들(2009)의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가 맺게되는 상호작용의 결과 같은 정의적 특성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함의한다.

둘째,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중학생 자녀의 정서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부모구성과는 상관없이 부모의 삶의 만족도가 낮은 집단에서만 유의하였다. 이는 한부모 가정일지라도 부모의 삶의 만족도가 높은 집단의 경우, 중학생 자녀의 정서행동문제 및 삶의 만족도에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와 비교했을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부모가 지닌 삶에 대한 태도는 자녀와의 상호작용, 정서적지지, 스트레스 등과 같은 감정, 행동, 정서를 통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김용희, 한창근, 2017)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결과는 가족형태와는 상관없이 부모와 자녀가 맺고 있는 질적인 관계가 자녀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그 어떤 환경적 요인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Parke, 2013)는 기존 연구결과들과 그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기존 연구(김의철 & 박영신, 2004)에 따르면 중년기 성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요인으로는 다른 요인들에 비해 경제적요인이 현저히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자기조절, 화목한 가정, 여가생활, 건강, 직장에서의 원만한 인간관계 등이 그 뒤를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적 요인은 가정생활에서의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직장생활, 여가생활에서의 삶에 질에도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서 기능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즉, 이는 중학생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의 경우 가정 내에서 경제적인 문제를 비롯한 가족 구성원들과의 관계의 질에 따라 삶의 만족도 수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들의 낮은 삶의 만족도로 인한 자녀와의 질적으로 낮은 수준의 상호작용은 자녀의 정서 및 삶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기존 연구

들에 따르면 부부갈등이 높은 가정의 청소년들은 한부모 가정의 청소년들보다 높은 수준의 우울, 불안, 스트레스 및 낮은 수준의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등을 보고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정소희, 2011). 또한, 한부모 가정의 부모들은 80%이상이 양육비와 교육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들의 소득 및 자산은 전체가구 대비 56.6% 정도로 낮은 수준임(여성가족부, 2018)을 고려할 때, 이들의 낮은 삶의 만족도는 취약한 경제사정을 지닌 부모가정과 마찬가지로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결과를 제시한다. 즉, 부모가정의 경우 낮은 경제적 수준은 자녀의 우울과 공격성을 증가시키고 공격성은 다시 삶의 만족도를 저하시키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부모 가정의 낮은 경제적 수준은 자녀의 우울과 사회적 위축을 증가시키고, 우울은 낮은 삶의 만족도를 예측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정의 낮은 경제적 수준이 자녀의 정서행동문제에 영향을 주는 구체적인 특성이 부모구성 집단에 따라 상이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생각된다. 우선, 본 연구에서 부모가정- 부모의 낮은 삶의 만족도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낮은 경제적 수준을 지니고 있다고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경제사정 등으로 인한 부모의 불화를 목격하거나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부모로부터 충분한 물리적·정서적 지원을 받지 못한 자녀의 경우 부모에 대한 공포감, 적대감과 분노, 실망, 죄책감 등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이들의 안전감을 위협하여 스트레스 수준을 높이며(Jekielek, 1998) 내적조절능력의 저하를 초래하여(Eisenberg, Fabes, & Murphy, 1996) 우울과 공

격성 등과 같은 정서행동문제를 호소하게 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우울은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Carlson & Cantweel, 1980) 특히 직·간접적인 폭력과 같은 긴장요인을 경험하는 상황에서만 우울이 공격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부정적 감정을 처리하기 위해 청소년들은 비행 등의 문제행동을 일으킬 수 있다(양혁, 양나연, Eunjoo Kim, 김보영, 2019). 따라서 부모의 잦은 갈등에 대한 노출 및 부모와의 낮은 수준의 정서적 상호작용이 자녀에게는 직·간접적 폭력 및 스트레스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Jekielek, 1998)을 고려할 때, 우울을 호소하는 부모-부모의 낮은 삶의 만족도 집단 청소년들은 자신의 우울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공격성을 표출하고 이로 인해 학교생활 및 생활 전반에서 친구 또는 부모와의 갈등 및 또 다른 외현적 문제행동을 보일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는 즉, 가정에서의 정서적 피해를 입은 학생들이 학교와 사회에서 또 다른 가해자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이러한 매커니즘은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 부모-부모의 낮은 삶의 만족도 집단이 보여준 본 연구의 결과는 한부모 가정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이혼 가정의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버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양육부모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한 착한 아이 콤플렉스, 한부모 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감정적 억압 및 해소되지 못한 부정적 감정(이현주, 2017) 등을 특징으로 하는 것과 차이를 보인다. 특히, 본 연구에서 확인된 가정의 낮은 경제적 수준이 한부모-부모의 낮은 삶의 만족도 집단의 청소년들의 우울과 사회적 위축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결과는 우울과 사회적 위축이 내재

화된 문제로서 청소년들이 또래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게 하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Ribin, Coplan, & Bowker, 2009)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기존연구들에서 사회적 위축 및 우울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증명된 또래관계는(김보영, 장은비, 2015) 청소년기 행동의 기준과 모범이 되고 사회성 및 성격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송영명, 이현철, 211). 즉, 이 집단의 청소년들은 한부모 가정이라는 사회적 편견 및 가정의 낮은 경제적 수준에 따른 사회에서의 소외감 및 우울로 인해 또래관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는 성인기 준비를 위한 발달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듯 사회적으로 취약한 자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고려되는 이 집단 청소년들은 나아가 가정에서 역시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을 보며 건강한 모델링 대상의 부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는 한부모-부모의 낮은 삶의 만족도 집단의 청소년들은 가정과 사회 모두에서의 지지자원 부족으로 인해 위축된 정서행동문제를 경험하고 이로 인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온전한 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겪을 위험이 있음을 함의한다.

셋째, 그러나 가정의 경제적 수준과 중학생의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정서행동문제의 매개효과는 부모-부모의 낮은 삶의 만족도 집단에서만 공격성에 대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부모-부모의 낮은 삶의 만족도 집단에서는 기대와 달리 우울이 유의한 매개효과를 지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전자에서는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직·간접적으로 청소년 자녀들의 삶의 만족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후자에서는 정서행동문제

에만 영향을 미칠 뿐 삶의 만족도에는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과이다. 이러한 차이는 각 집단의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개입시 차별화된 전략을 지닐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정서행동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개입전략으로서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 및 정서행동문제를 호소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다각적인 개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부모의 낮은 삶의 만족도가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들에 대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정서적 지원이 확충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다양한 지역사회기관들을 통해 부모들이 가정 및 직장에서 받게 되는 스트레스에 대한 올바른 대처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올바른 양육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부모의 부정적인 정서적 경험이 자녀에게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한다. 이를 통해 부모-자녀의 상호작용에 긍정적인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양미진, 남은영, 이수림, 이자영, 허자영, 2009).

둘째, 청소년들의 정서행동문제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학교 차원에서의 개입이 보다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의 학교상담은 개인상담에만 치중해 왔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정서행동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에는 부모나 교사가 포함될 필요가 강조되고 있으며(서미정, 2014), 실제로 부모가 함께 참여한 프로그램이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Webster-Stratton & Hammond, 1998). 아직 국내 중·고등학교에서는 부모참여를 통한 상담프로그램 실시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학교상담 장면에서 가족 구성원들간의 관계 향상을 통한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해결을 위한 개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향후 학교상담은 부모-자녀간의 긍정적 상호작용 향상을 위한 개입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아가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상담프로그램의 효과성 관련 연구들(권태연, 2015; 이윤희 & 권정아, 2015)에서는 학교상담사의 개인 역량에 따라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지적한다. 이는 청소년들의 정서행동문제 개선을 위한 상담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교사 개인 및 학교 차원에서의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학교 차원에서의 장기적인 투자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의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이 결과적 함의 및 후속 연구자를 위한 시사점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우선, 연구대상의 제한성으로 인하여 이들의 정서행동문제 및 삶의 만족도에 대한 해석에서의 주의를 요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정책연구원이 제공한 초4 패널 5차년도 데이터의 부모가정집단 청소년들 중 일부만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는 한부모가정집단 연구대상과의 비율을 고려한 무작위 선정이었으나 이로 인해 각 집단의 표본수가 82명에서 88명 수준에 불과하다는 한계를 지니게 되었다. Kline(1998)에 따르면 다집단 모델링 연구의 경우 경험적으로 각 집단별 100명 정도의 샘플 수가 적절한 것으로 보고된다. 그러나 조절효과 검증시 집단의 크기가 동일하지 않으면 전체 표본 크기와 상관없이 통계적 검증

력은 감소한다(Aguinis, 1995; 서영석,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집단별 표본수 문제는 패널 데이터 활용으로 인해 발생한 상황적 제약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며, 제시된 결과가 전체 데이터를 반영하였다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신중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 결과 해석의 일반화에 주의를 요한다. 또한, 이러한 집단별 표본수 충족의 문제는 모형 적합도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모형 적합도 검증에서 구조동일성 모형의 CFI는 수용 가능한 수준, RMSEA는 좋은 수준을 보인 반면 TLI 수치는 다소 낮게 나타났다. 홍세희(2000)에 따르면, TLI의 경우 모형이 자료를 잘 설명할 지라도 그 모형이 필요이상으로 복잡한 경우 그 값은 높지 않을 수 있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결과가 지니는 의미는 기존 연구 결과들과 현장에서의 적용 등을 고려했을 때 상당히 의미가 있으며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TLI 값은 연구모형이 실증 데이터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 한 집단의 샘플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집단이 네 개로 분리됨에 따라 표본오류 및 중심적 χ^2 를 바탕으로 한 이론모형에서의 간명성이 취약해졌기 때문으로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표본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전집오류, 현실적인 가정에 기초한 비중심적 χ^2 를 바탕으로 모형오류 및 간명성을 동시에 고려한 RMSEA 수치가 우수한 값을 보였기에 다른 적합도 수치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 발생한 이러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집단분석이 아닌 상호작용을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연구방법을 적용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삶의 만족도 및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단일 문항으로 측정되었기에 해당 변인들을 측정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내용이 반영되지 못했다. 또한,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객관적인 가계소득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닌, 부모의 주관적 평정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후 관련 연구에서는 폭 넓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척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활용된 변인은 모두 동일 시점에서 측정되었기에 인과적 관계로 해석하기에 주의를 요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들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강덕제, 이강현 (2017). 청소년기의 여가경험과 삶의 만족, 자아관, 자기결정감 및 스트레스와의 관계 - 한국청소년 패널조사를 활용한 종단연구 -. *여가관광연구*, 27, 35-51.
- 강윤아 (2018). 부모 및 자녀 삶의 만족도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인과관계 분석-잠재성장 모형, 잠재계층분석, 잠재전이분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일반대학원.
- 곽금주 (1992). 공격영화시청에 따른 공격스크립트의 활성화 - 아동과 청소년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5(1), 85-98.
-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8). 제14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세종: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 구현영, 박현숙, & 장은희 (2006). 고등학교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영향 요인.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6(1), 151-158.

- 권태연 (2015). 아동·청소년 우울 예방 프로그램 효과에 관한 메타분석. *사회복지연구*, 46(3), 35-64.
- 김경식, 최성보, 이현철 (2009). 사회적 자본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가족, 학교, 지역사회 내 사회적 자본을 중심으로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연구원*, 25(2), 60-83.
- 김경훈, 김형재, 이은림 (2013). 아버지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유아의 정서기능 및 행복감의 차이. *한국보육지원학회지*, 9(3), 5-32.
-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1984). *간이정신진단검사 실시요강*.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김금순, 김은미 (2015). 청소년의 정서문제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스마트폰의존을 매개효과 중심으로. *교정복지연구*, 38, 33-57.
- 김남정, 임영식 (2012). 청소년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청소년활동의 중재효과. *청소년학연구*, 19(8), 219-240.
- 김보영, 장은비 (2015). 중학생의 사회적 위축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우울을 통한 또래애착과 성취가치의 조절된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2(7), 31-52.
- 김선희, 김경연 (2001). 학령기 아동의 행동문제 유형에 따른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인과모형. *아동학회지*, 22(1), 19-34.
- 김소영, 윤기봉 (2016).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한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변화추정: 변화에 있어서의 개인차에 대한 요인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27(2), 271-296.
- 김신영, 임지연, 김상욱, 박승호, 유성렬, 최지영, 신원영 (2006). *한국 청소년발달 지표조사 I: 청소년 발달 종합지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181.
- 김연주, 이지민 (2015).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청소년 전환기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과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3(1), 1-17.
- 김용희, 한창근 (2017). 부모 삶의 만족도와 아동 삶의 만족도의 종단적 관계: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을 이용하여. *사회복지연구*, 48(3), 29-55.
- 김은아, 배민영 (2016). 부정적 양육방식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위축과 또래관계의 중다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3(9), 155-176.
- 김의철, 박영신 (2004). 청소년과 성인의 삶의 질 인식에 대한 토착심리 분석: 가정, 학교, 직장, 여가 생활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4), 973-1002.
- 김정연, 정현주 (2008). 청소년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리뷰*, 13, 171-190.
- 김주리, 김남희 (2014). 어머니의 행복감 및 양육행동과 유아의 행복감 간 관계. *생애학회지*, 4(1), 19-32.
- 김지현, 이지민 (2011).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부모역할만족도와 결혼만족도의 구조모형검증. *아동복지연구*, 9(3), 19-38.
- 김진아, 한귀례 (2014). 부모양육태도와 정서문제의 관계구조. *상담학연구*, 15(6), 2379-2399.
- 남미애 (2011). 청소년웹터에서 생활하는 가출 청소년의 요인별 생활만족이 청소년발달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3(4), 203-229.
- 박서영, 박성연, Cheah, C. S. L. (2007). 어머니의 삶의 만족감 및 양육행동과 남, 여 유

- 아의 사회적 유능성간의 관계. *인간발달연구*, 14(2), 29-51.
- 백혜영, 강현아 (2016). 빈곤이 아동의 사회적 자원을 통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 아동복지학*, 54, 113-144.
- 소선숙, 김청송 (2016).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과 학교적응의 보호요인 및 위협요인 연구. *청소년학연구*, 23(7), 375-400.
- 서영석 (2010). 상담심리 연구에서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검증: 개념적 구분 및 자료 분석 시 고려 사항.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4), 1147-1168.
- 서미정 (2014). 아동과 청소년의 공격성 감소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도향 및 추후 연구 과제. *아시아교육연구*, 15(2), 141-169.
- 석말숙, 구용근 (2015). 가족요인이 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7(1), 55-74.
- 석소현, 신성희 (2010). 양부모 가정과 한부모 가정 학령기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비교.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0(3), 367-377.
- 성은모, 김근희 (2013). 청소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특성과 환경특성 간의 관계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24(4), 177-202.
- 송신영, 박성연 (2008).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친구관계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6(5), 19-33.
- 송영명, 이현철 (2011). 한국 청소년의 교유관계 결정요인 분석: 자아개념, 부모관계, 교사관계, 교우스트레스를 중심으로. *한국교원교육연구*, 28(1), 91-112.
- 송현심, 성승연 (2015). 사회적 지지가 중학생의 학교생활 적응과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 자기조절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7(1), 129-157.
- 송현주, 황순택 (2016).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와 삶의 만족 간의 관계: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이용한 종단자료의 분석. *청소년복지연구*, 18(4), 25-46.
- 신미, 전성희, 유미숙 (2010). 청소년의 삶의 만족과 안녕에 관한 요인 연구. *청소년학연구*, 17(9), 131-150.
- 안지혜 (2016).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중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양미진, 남은영, 이수림, 이자영, 허자영 (2009). 저소득 가정 부모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한국청소년상담원.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 양혁, 양나연, Eunjoo, Kim, 김보영 (2019). 비행피해 경험이 청소년의 비행 및 비행가해에 미치는 영향: 우울과 공격성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2), 673-691.
- 여성가족부 (2018). 『한부모가족실태조사』 통계정보보고서. 서울: 여성가족부.
- 염유식, 김경미, 이승원, 김수미 (2016).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연구조사결과보고서*. 서울: 한국방정환재단.
- 유순화 (2007).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전환에 관한 학생들의 기대와 지각. *초등교육연구*, 20(1), 355-375.
- 유정원, 김형모 (2012). 빈곤이 아동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생태체계 변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아동과 권리*, 16(2), 231-257.

- 이기영 (1987). 가사노동의 상품대체에 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 이명숙 (2013). 청소년의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가족기능 및 진로 정체감의 영향: 한국-중국 비교 연구. *청소년학연구*, 20(4), 151-174.
- 이봉주, 민원홍, 김정은 (2014). 청소년기 사회적 위축 문제의 발달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발달-맥락주의적 관점을 적용한 탐색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21(8), 317-346.
- 이윤희, 권정아 (2015). 청소년 우울 개선 프로그램의 특성 및 효과크기 분석: 다층메타 분석을 통한 효과크기 검증. *정서·행동장애연구*, 31(4), 261-283.
- 이은경, 박성연 (2004). 양친이 연계된 가정 아동의 정서, 행동문제에 대한 연구-사회인구학적 변인 및 양육자의 양육태도를 중심으로.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2(12), 191-204.
- 이현주 (2017). 이혼가정아동을 위한 사회적 문제해결 향상 집단미술심리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박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 장문정, 이은남 (2015). 한국형 폭력 반응 측정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응급실 간호사 대상. *대한간호학회지*, 45(4), 544-553.
- 장영애, 이영자 (2014). 청소년의 우울 및 자살 충동에 대한 관련변인의 영향. *청소년시설환경*, 12(4), 133-144.
- 전영상, 최영신 (2017). 학업성적이 부모와 자신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4(2), 473-490.
- 전현정, 정혜원 (2016).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과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중단매개효과 검증: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이 삶의 만족도를 매개로 자녀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7(2), 215-242.
- 전혜진, 유미숙 (2015). 청소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존중감, 진로성숙도 및 미시체계 변인의 경로분석. *청소년학연구*, 22(6), 75-104.
- 정경미, 신민정, 강지현, 김은성 (2013). 남자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문제의 하위 발달 경로 확인: 성장 모형을 적용한 2년간의 중단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1), 177-197.
- 정혜숙, 김영희 (2014). 아동이 지각한 행복 결정요인: 심리특성, 사회활동, 관계적 요인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1(7), 89-118.
- 조명환, 김정오, 권석만 (1994). 청소년의 삶의 질.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16(2), 61-94.
- 조보환, 임경희 (2003). 아동의 정서·행동문제 자기보고형 평정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4), 729-746.
- 조주영, 오인수 (2014). 청소년의 학교폭력 경험유형과 유형변화 및 정서문제 간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25(4), 301-323.
- 중앙일보 (2013.8.30.). 중학생 38% “중2병 겪고 있다”... 원인으로서는 ‘학업 및 성적’ 지목. <https://news.joins.com/article/12476136>에서 검색.
- 진혜민, 박병선, 배성우 (2011). 비공식낙인, 자아존중감, 우울, 공격성이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경로분석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3(2), 121-148.
- 최선남, 최외선, & 손현숙 (1995). 청소년의 우

- 울성향과 동적가족화에 나타난 반응특성과의 관계. *미술치료연구*, 2, 19-35.
- 최아론, 이영순 (2015). 어머니의 행복감과 초등학교 자녀의 행복감 관계에서 자녀의 생활스트레스,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6(1), 337-351.
- 최희철, 황매향 (2010). 학교상담: 학업성취와 삶의 만족 사이의 자기회귀 교차지연 효과 검증: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상담학연구*, 11(3), 1255-1270.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제1-7차 코드북*.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아름 (2018). 부모의 삶의 만족도, 긍정적 양육행동,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의 차이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5(5), 1-24.
-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홍순혜 (2004). 부모의 이혼이 청소년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양육부모의 경제수준 및 양육행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17, 151-177.
- Aguinis, H. (1995). Statistical power with moderated multiple regression in management research. *Journal of Management*, 21(6), 1141-1158.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
-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1), 83-96.
- Berger, E. M., & Spieß, C. K. (2011). Maternal life satisfaction and child outcomes: Are they related?.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32(1), 142-158.
- Bigner, J. J. (2010). *Parent-child relations: An introduction to parenting*. Upper Saddle River, N.J.: Merrill.
- Bornstein, M. H., Hahn, C. S., Suwalsky, J. T., & Haynes, O. M. (2003). The Hollingshead four-factor index of social status and the socioeconomic index of occupations. *Socioeconomic Status, Parenting, and Child Development*, 25(6), 29-81.
- Bradshaw, J., Martorano, B., Natali, L. et al. *Child Ind Res* (2013) 6: 619. <https://doi.org/10.1007/s12187-013-9196-4>
- Bronfenbrenner, U. (1989). Ecological systems theory. In R. Vasta (Ed.), *Annals of child development: Vol. 6 Six Theories of Child Development: Revised Formulations and Current Issues* (pp. 187-249). Greenwich, CT: JAI Press.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pp. 136-162). Newbury Park, CA: Sage.
- Bynum, M. S., & Kotchick, B. A. (2006). Mother-adolescent relationship quality and autonomy as predictors of psychosocial adjustment among African American adolescent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15(5), 528-541.

- Carlson, G. A., & Cantwell, D. P. (1980). Unmasking masked depress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7(4), 445-449.
- Cheung, G. W., & Rensvold, R. B. (2002). Evaluating goodness-of-fit indexes for testing measurement invarianc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9(2), 233-255.
- Chung, Grace H., 이상균, 유조안 (2015). 청소년들은 어떤 날 더 행복한가?: 부모와의 친밀감이 일상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및 가구소득과 학교 급에 따른 차이.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0(1), 3-23.
- Clair, A. (2012).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subjective well-being and the life satisfaction of their children in Britain. *Child Indicators Research*, 5(4), 631-650.
- Conger, R. D., Conger, K. J., & Martin, M. J. (2010). Socioeconomic status, family processes, and individual developmen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2(3), 685-704.
- Curran, P. J., West, S. G. & Finch, J.(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1), 16-29.
- Dew, T., & Huebner, E. S. (1994). Adolescents' perceived quality of life: An exploratory investigatio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32(2), 185-199.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3), 542-575.
- Diener, E. (2000). Subjective well-being: The science of happiness and a proposal for a national index. *American Psychologist*, 55(1), 34-43.
- Diener, E., Oishi, S., & Lucas, R. E. (2003). Personality, culture, and subjective well-being: Emotional and cognitive evaluations of lif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4(1), 403-425.
- Eisenberg, N., Fabes, R. A., & Murphy, B. (1996). The relations of children's dispositional empathy-related responding to their emotionality, regulation, and social functioning. *Developmental Psychology*, 32(2), 195-209.
- Frank, D. A., Casey, P. H., BMLlack, M. M., Rose-Jacobs, R., Chilton, M., Cutts, D., ... & Cook, J. T. (2010). Cumulative hardship and wellness of low-income, young children: multisite surveillance study. *Pediatrics*, 125(5), 1115-1123.
- Garg, R., Melanson, S., & Levin, E. (2007). Educational aspirations of male and female adolescents from single-parent and two biological parent families: A comparison of influential factor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6(8), 1010-1023.
- Hair, J. F, Tatham, R. L, Anderson, R. E, Black, W. (1998). *Multivariate data analysis*. 5th ed.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 Hall.
- Hawkins, W. E., Hawkins, M. J., & Seeley, J. (1992). Stress, health-related behavior and quality of life on depressive symptomatology in a sample of adolescents. *Psychological Reports*, 71(1), 183-186.
- Huebner, E. S. (1991). Initial development of the student's life satisfaction scale.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12(3), 231-240.
- Huebner, E. S., Suldo, S. M., Smith, L. C., & McKnight, C. G. (2004). Life satisfaction in children and youth: Empirical foundations and

- implications for school psychologists. *Psychology in the Schools*, 41(1), 81-93.
- Jekielek, S. M. (1998). Parental conflict, marital disruption and children's emotional well-being. *Social Forces*, 76(3), 905-936.
- Jiang, X., Lyons, M. D., & Huebner, E. S. (2016). An examination of the reciprocal relations between life satisfaction and social problem solving in early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ce*, 53, 141-151.
- Kammerman, S., Phipps, S., & Ben-Arieh, A. (2010). From child welfare to child well-being: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on knowledge in the service of policy making. Dordrecht: Springer.
- Kandel, D. B., Raveis, V. H., & Davies, M. (1991). Suicidal ideation in adolescence: Depression, substance use, and other risk factor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0(2), 289-309.
- Karremans, J. C., Van Lange, P. A., Ouwerkerk, J. W., & Kluwer, E. S. (2003). When forgiving enhances psychological well-being: The role of interpersonal commit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5), 1011-1026.
- Kline, R. B. (1998).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York: Guilford Press
- Klocke, A., Clair, A., & Bradshaw, J. (2014). International variation in child subjective well-being. *Child Indicators Research*, 7(1), 1-20.
- Leyendecker, B., Harwood, R. L., Comparini, L., & Yalcinkaya, A. (2005). Socioeconomic status, ethnicity, and parenting. *Parenting: An Ecological Perspective*, 2, 319-341.
- Mueller, C. W., & Parcel, T. L. (1981). Measures of socioeconomic status: Alternatives and recommendations. *Child Development*, 52(1), 13-30.
- OECD (2017). OECD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 Students' well-being. (No. Volume III). retrieved from OECD: www.oecd.org/pisa/
- Park, N., & Huebner, E. S. (2005). A cross-cultural study of the levels and correlates of life satisfaction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6(4), 444-456.
- Park, H. S., Koo, H. Y., & Schepp, K. G. (2005). Predictors of suicidal ideation for adolescents by gender.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5(8), 1433-1442.
- Parke, R. D. (2013). *Future families: Diverse forms, rich possibilities*. Hoboken, NJ: Wiley-Blackwell.
- Pavot, W., & Diener, E. (1993). The affective and cognitive context of self-reported measures of subjective well-being. *Social Indicators Research*, 28(1), 1-20.
- Rubin, K. H., & Coplan, R. J. (2004). Paying attention to and not neglecting social withdrawal and social isolation. *Merrill-Palmer Quarterly*, 50(4), 506-534.
- Rubin, K. H., Coplan, R. J., & Bowker, J. C. (2009). Social withdrawal in childhood. *Annual Review of Psychology*, 60, 141-171.
- Suldo, S. M., & Huebner, E. S. (2006). Is extremely high life satisfaction during adolescence advantageous?. *Social Indicators Research*, 78(2), 179-203.
- Tiet, Q. Q., Bird, H. R., Hoven, C. W., Wu, P.,

- Moore, R., & Davies, M. (2001). Resilience in the face of maternal psychopathology and adverse life event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10(3), 347-365.
- Webster-Stratton, C., & Hammond, M. (1998). Conduct problems and level of social competence in Head-Start children: Prevalence, pervasiveness, and associated risk factors. *Clinical Child & Family Psychology Review*, 1(2), 101-124.
- Yang, Y. (2008). Social inequalities in happiness in the united states, 1972 to 2004: An age-period-cohort analysi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3(2), 204-226.
- Younger, A. J., & Daniels, T. M. (1992). Children's reasons for nominating their peers as withdrawn: Passive withdrawal versus active isol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8(5), 955-960.
- 원고접수일 : 2020. 02. 18.
수정원고접수일 : 2020. 04. 03.
최종게재결정일 : 2020. 04. 03.

**The Mediating Effect of Emotional Behavioral Problem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oeconomic Status and
Middle School Students' Life Satisfaction:
A Multi-group Analysis According to
Parental Composition and Parents' Life Satisfaction**

Gyuyoung Ha

Minyoung Lee

Department of Education, Korea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socioeconomic status, emotional behavioral problems, parental composition, and parents' life satisfaction, all of which are factors that affect the life satisfaction of Korean middle school students. To this end, multi-group analysis was conducted on KCYPS panel data. The results showed four major patterns. First, family socioeconomic status has a significant direct effect on the students' life satisfaction only when the student has two parents and when the student's parents have high life satisfaction. Second, family socioeconomic status only significantly influenced students' emotional behavioral problems when parents had low life satisfaction, regardless of parental composition. Third, the mediating effect of emotional behavioral problems (aggress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socioeconomic status and student life satisfaction was only significant when the student had two-parents and when the student's parents' had low life satisfaction. Fourth, depression was the variable most strongly correlated with student life satisfaction. This paper discusses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the implications of its results about how to improve students' life satisfaction.

Key words : *life satisfaction, parental composition, single-parent family, parent life satisfaction, socioeconomic status, emotional behavioral problems*